

## 제1절 사찰(寺刹)

사찰은 불상을 안치하고 승려가 거주하면서 예배·수행·의식 등을 거행하는 장소 또는 건축물로 절·사원(寺院)·정사(精舍)·승원(僧院)·가람(伽藍) 등으로도 불린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사찰은 크게 평지가람형(平地伽藍型)·산지가람형(山地伽藍型)·석굴가람형(石窟伽藍型)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평지가람은 수도를 중심으로 넓은 사역(寺域)에 걸쳐 장엄한 건축물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며, 산지가람은 신라 말기에 도래한 선종(禪宗)의 영향과 풍수지리에 의거하여 주로 수행 생활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석굴가람은 암벽을 뚫어 건립한 사원을 말한다. 고대 한국의 사찰은 주로 평지가람으로 건립되었으나 수행 또는 포교를 위한 입지 조건에 따라 산지가람이나 석굴가람도 건립되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한국의 전통 사찰이나 사지는 주로 산지가람이 대부분인데 이는 역사적으로 전승되어온 호국호법(護國護法)의 전통과 조선시대의 억불숭유 정책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 울진 지역의 사찰이나 사지들도 주로 부구천·평해 남대천·왕피천과 같은 하천 주변의 산지를 중심으로 산지가람이 많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710</sup>

울진 지역의 현존하는 사찰은 46개로 조사되었으나 사적이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찰은 많지 않다. 그 가운데서도 불영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아주 미약한 편이다. 울진 지역의 유일한 전통사찰인 불영사에 대해서는 그나마 연구가 되었으나 한계도 많다. 울진 지역의 현존하는 사찰 가운데 사적이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찰은 신라시대에 창건된 불영사·광흥사·수진사와 조선시대에 창건된 성조암, 그리고 근·현대에 창건된 보광사·동림사·광도사·월궁사·죽청사·부국사·봉화사·용천사·신광사·신계사·지장사·용화사·자황사 등 17개 정도로 이들 사찰의 사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도표는 현재 울진 지역에서 불법을 펴고 있는 전체 사찰의 현황이다.

710. 심현용, 2008, 「울진지역의 불교문화 연구」『경주문화연구』10, 경주대학교 문화재연구원, 184~185쪽

&lt;표 64&gt; 울진군의 사찰 현황

사찰명	소재지	종단	창건시기
동림사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10-3	조계종	1952년
보광사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361	//	1931년
용천사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588	//	1976년
지장사	울진군 울진읍 명도리 28	//	1994년
봉화사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산16-5	천태종	1974년
일출사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17		
울진교당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603-16	원불교	1967년
법연원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43-2		
수진사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 936	조계종	신라시대
월궁사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산 28-2	//	1953년
선적사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303-5	//	
월광사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1049-4		
수현사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244-1		
신광사	울진군 북면 덕구리 724	조계종	1983년
옥정사	울진군 북면 고목리 729	태고종	1954년
부국사	울진군 북면 부구리 1043	천태종	1967년
성주암	울진군 북면 주인리 467		
성조사	울진군 북면 부구리1308	삼론종	1994년
불성사	울진군 북면 덕구리708-1	조계종	
흥륜사	울진군 북면 두천2리607	원효종	
불영사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120	조계종	신라시대
신계사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275-48	태고종	1989년
아미사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2-1	아미타종	2009년
용화사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리 107	조계종	1994년
구암사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87	//	
죽청사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437	천태종	1970년
신흥사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839	조계종	
관음사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498-1	미타종	1998년
후포광도사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40-3	조계종	1952년
후포원불교	울진군 후포면 후포5리 1003-8	원불교	



사찰명	소재지	종단	창건시기
후포포교당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537-1	천태종	동해사
용궁암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289-33		
청명사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844		
해광사	울진군 근남면 진북리 145	천태종	
용궁사고구려촌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1505		
자황사	울진군 근남면 행곡3리 994-2	자황종	2010년
광흥사	울진군 온정면 덕산1리 1135	조계종	신라시대
보광사	울진군 온정면 금천2리 958	//	1972년
백련암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1357		
백문사	울진군 온정면 소태2리 580-1	천태종	1990년
신불사	울진군 기성면 구산봉산로 251-140	조계종	
기성포교당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791	천태종	
산하백암사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442	정토종	1995년
영명사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산 68	태고종	2003년
구룡사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808번지		
오봉사	울진군 매화면 길곡리 209	삼론종	
46			

울진군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단과 창건시기만 더하여 작성하였다.

울진문화원, 1998, 『울진의 사찰』, 새암기획 ; 울진군, 2001, 『울진군지』 등을 참고하였음

## 1. 광도사(廣度寺)

광도사는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에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의 말사이다. 1952년 5월에 주지 김봉호(金鳳浩)가 창건하였다. 1955년 5월에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관음불상을 모셔와 봉안하였다. 그 후 일본에서 대세지불상을 모셔와 봉불했다. 광도사 당우는 대웅전이 있는 2층 건물 1동과 산신각, 요사채가 전부이다. 2층 건물 2층에 위치한 대웅전은 팔각지붕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이다.<sup>711</sup>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662호로 지정된 울진 광도사 신중도(蔚珍廣度寺神衆圖)는 세로 171.5cm, 가로 223.5cm의 규모로 비단 여섯 폭을 가로로 연결해 하나의 화면을 이루고 있다.

711. 울진문화원, 1998, 『울진의 사찰』, 새암기획, 81쪽

전반적으로 훼손이 심한 편이나, 화기를 통해 ‘울진(蔚珍)’이라는 봉안 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불화의 양식과 시주자명을 통해 19세기 중반 경으로 조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신중도 가운데 28위의 신중을 한 화폭에 담아 구성한 불화로서 병풍을 배경으로 천룡과 천부상을 구분하여 권속을 배치한 공간미와 구도를 잘 살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채색불화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19세기 신중도의 도상 연구에 학술적 가치를 지닌 불화이다.<sup>712</sup>

광도사에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1이 유존한다. 이 책은 1631년에 제작된 목판본으로 1책이며, 크기는 반곽 25×20.5cm이다. 특징은 사주단변, 유계, 반엽 9행 16자, 상하 내향혼용어미로 판심제는 법화경서(法華經序), 묘법경권일(妙法經卷一)이라고 되어 있다.<sup>713</sup>

## 2. 광흥사(廣興寺)

광흥사는 울진군 온정면 덕산리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의 말사로 광흥사는 ‘원덕산’ 마을에서 절골로 들어가면 계곡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광흥사의 자세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신라 흥덕왕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지금의 사찰은 근년에 세워진 것이나 원래 광흥사의 터라 한다. 광흥사는 약 300년 전까지만 해도 사세가 번창하여 당시에는 현 덕산리 지역의 대부분의 전답과 임야가 광흥사의 소유였으며 이 지역의 주민들 대부분이 광흥사의 소작농을 하던 불도들이었다고 한다.<sup>714</sup> 당우로는 대웅전과 산령각 및 요사가 있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기와지붕 집이다.

18세기 후반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와 『범우고(梵宇攷)』, 1899년의 『평해군읍지(平海郡邑誌)』 및 1937년의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 및 일제강점기까지도 사세를 유지했던 듯하다.

광흥사는 창건 이후 한동안 쇠락하기도 하였지만 임진왜란 이후 중흥하여 일제강점기까지 줄곧 사세를 유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사찰의 규모도 제법 컸음을 볼 수 있다. 광흥사는 18세기 후반의 『여지도서』에는 사찰 규모가 87칸이라<sup>715</sup> 고 하였으며, 19세기 말엽의 『평해군읍지』에는 51칸으로<sup>716</sup>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제법 큰 규모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불영사의 규모가 18세기 후반에 40칸<sup>717</sup> 정도였음과 비교가 된다.

712. 문화재청, 「울진 광도사 신중도」,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2020년 2월 16일

713. 한국학중앙연구원, 「불교문헌」,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16일

714.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문화유적분포지도』-울진군-, 328쪽

715. 『여지도서(輿地圖書)』상, 평해군 사찰(탐구당, 1973) 543쪽

716. 김정민·김주부 역, 2017, 『국역 조선환여승람 울진군·강원도 평해군읍지』, 울진문화원, 204쪽

717. 『여지도서』상, 울진현 사찰(탐구당, 1973) 562쪽

또 『조선환여승람』에 광흥사는 ‘군의 큰 사찰이다’<sup>718</sup>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경내에 남아 있는 탑재와 절 진입로에 있는 부도군이 예전의 사세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 문인 황중윤(黃中允)의 시 1수<sup>719</sup>가 전해진다. 황중윤은 평해 황씨로 평해읍 오곡리 수진사에 시를 남긴 해월 황여일의 아들이다.

곡호조금체세원(谷號操琴體勢圓) 골짜기 이름 조금 이라 해도 생긴 모양 둥근데  
청계일곡족반선(淸溪一曲足盤旋) 맑은 시내 한 굽이 거닐기에 알맞다  
춘래막방도화범(春來莫放桃花泛) 봄물에 복사꽃 띄우지 마시게  
공인어주입동천(恐引漁舟入洞天) 어부들 배 저어 들어올까 겁나니

광흥사에는 도지정문화재가 2점 있다. 그중 하나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80호인 울진 광흥사 소장 명양경(蔚珍廣興寺所藏冥陽經)이다. 명양경은 물과 물에서 살다 죽은 무주고혼(無主孤魂)을 천도하여 극락왕생하게 하기 위해 지내는 의식인 수륙재(水陸齋)의 의식과 절차를 수록한 것이다. 의식에 필요한 절차의 요점만을 뽑아 정리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편찬하였다. 이 책은 다른 판본에 수록되지 않은 부록 12장이 들어 있고,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 불교의례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으며 전래되는 간본 가운데 비교적 초기간본이다.<sup>720</sup>

나머지 하나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20호로 지정된 ‘울진 광흥사 대웅전 판벽화 및 기타부재(蔚珍廣興寺大雄殿板壁畫-其他部材)’로 광흥사 대웅전의 벽화부재[2건 19점]와 기타부재[1건 4점]로 모두 23점이다. 불전이 해체되면서 내부 빗천장에 그려진 주악천인도[9점]와 운룡도[10점], 그리고 기타의 묵서명문(墨書銘文) 부재[4점] 등이 수습되었는데, 묵서를 통해 영조 46년(1770)에 ‘부일(富一)’이란 화승(畵僧)이 그렸음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부일은 18세기 중후반기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인물로서 다수의 작품이 전해진다. 경상북도 일대의 주불전에 주악천인도와 운룡도가 그려진 사례는 빈번하지만, 제작 시기나 제작자가 알려진 것은 없다. 이 유물들은 비록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뛰어난 필력과 대담한 구성이 돋보이는 벽화이며, 제작자를 알 수 있는 묵서가 있어 조선 후기 천정 벽화의 제작 시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sup>721</sup>

기타 문화재로는 고려시대 석탑 부재와 조선 후기 부도군이다. 석탑재는 광흥사 입구 담장에 2개의 갑석과 옥개 석편이 쌓여져 있다. 광흥사 내의 석탑재로 보이나 석탑지의 정확한

718. 김정만·김주부 역, 2017, 앞 책, 44쪽

719. 『강원도지』권5, 사찰 구평해(강원지간행소, 1941), 42쪽

720. 문화재청, 「울진 광흥사 소장 명양경」,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2020년 2월 16일

721. 문화재청, 「울진 광흥사 대웅전 판벽화 및 기타부재」,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2020년 2월 16일

위치는 알 수 없다. 현재 남아 있는 직경 1m의 하대 갑석 1개와 옥개 석편은 고려시대 석탑의 양식을 보인다. 또 광흥사의 입구 500m 아래에는 부도군이 있다. 4기의 부도와 2기의 비가 나란히 놓여 있는데 부도 1기는 근년에 조성한 것이다. 부도는 종형으로 상륜부와 탑신석이 한 돌로 되어 있다. 높이는 81~102cm로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한다. 부도비는 완하당대사(1809)와 기암당대선사(1830)의 것이다.<sup>722</sup>

### 3. 동림사(東林寺)

동림사는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으며, 불영사의 포교당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의 말사이다. 1952년 불영사 주지 김용호(金龍浩)가 포교를 목적으로 신도 김용식(金容湜)의 기재(寄財)를 회사 받아 민가를 구입하고 개수하여 포교당을 만들고 해인사의 영암 박기종(朴淇宗)을 포교사로 취임케 하여 불영사의 첫 번째 포교당으로서 출발하였다. 그 후 점차 신도가 많아지자 1953년 10월 5일에 독립 사찰로서 승격 인가를 얻어 강원도 월정사 관할의 동림사로 개칭하였다. 1963년 울진군의 행정구역 변경으로 경상북도에 편입됨에 따라 불국사 관할이 되었다. 대웅전은 원래 울진읍 대흥리에 있던 대흥사(大興寺) 대웅전으로서 숙종 7년(1681)에 건립되었다. 수십 년 동안 폐사로 방치되어 도괴 직전에 당면한 대흥사 대웅전을 신도인 장상진(張相軫)이 사재로 1963년 3월에 동림사로 이관하였다.<sup>723</sup>

불영사 또한 불국사에 소속된 말사이기 때문에 불영사의 포교당인 동림사도 결국 불국사에 소속되어 있다. 하지만 2011년 4월 직접적인 관리 운영권이 불영사로 이관됨으로써 불영사가 포교당인 동림사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5월에는 문화복지 공간으로 연면적 125평 규모의 동림사 심전문화복지관을 준공하였다.

동림사 대웅전은 다포계 팔작기와지붕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이다. 공포는 외3출목, 내4출목의 다포 구성으로, 쇠서는 외단이 앙서형에 연봉을 붙인 형태이고, 내단은 연봉을 조각한 조선 후기적 수법이다. 대웅전의 구조는 일반적인 중대 공수법과 달리 대들보 위에 장형과 평방형 부재를 ‘정(井)’자형으로 결구하였고, 외2출목, 내2출목의 공포로, 종도리와 종도리를 결구하였다. 동림사 대웅전의 중대공 결구법은 운문사 대웅보전, 영지사 대웅전 등 영남 지방 몇몇 주불전에서만 보이는 구조 수법으로, 시기 및 지역, 공장(工匠) 간 관계성이 주목되는 건축물이다.<sup>724</sup>

경내에 삼층석탑(三層石塔)이 있다. 이 탑은 원래 울진군 근남면 노음2리 오로동에 있

722. 한국학중앙연구원, 「광흥사」,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19년 12월 12일

723. 울진문화원, 1998, 앞 책, 42~43쪽

724.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림사」,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5일

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대천사(大川寺)에 있었던 것으로 절은 없어지고 탑만 남았던 것을 1963년 동림사 대웅전 앞에 이설하였다. 삼층석탑은 ‘대천사지 삼층석탑’, ‘노음리 삼층석탑’ 등으로 알려져 왔으며, 2층 기단을 구비한 평면방형의 일반형 삼층석탑으로 재질은 화강암이며, 높이는 3.1m이다. 제작 시기는 삼국시대, 나말여초, 고려 초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탑 신석이 위쪽으로는 넓고 아래쪽으로는 좁은 형태를 취하는 등 신라석탑의 양식을 잘 계승한 고려 중기, 즉 12세기로 추정된다.<sup>725</sup>

#### 4. 보광사(寶光寺)

보광사는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의 말사로 1931년 승려 보화(普化)가 창건하였으며, 1972년에 보덕 스님이 중창한 사찰로서 백암온천과 가까운 백일홍동산 옆에 위치하고 있다. 보광사의 당우로는 대웅전·극락전·산신각·용왕당·범종각·요사채 등이 있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팔작지붕의 건물로 산의 중턱을 깎고 성토한 대지 위에 세워져 있다. 대웅전 앞에는 한 뿌리에 6개의 가지가 벌어진 육대송이 있다. 울진읍을 근거리에 둔 보광사는 사방에 수림이 울창하고 공기 또한 청량하여 울진 시민의 휴식처로서 인기를 얻고 있다.<sup>726</sup>

#### 5. 봉화사(峯華寺)

봉화사는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대한불교천태종 소속 사찰이다. 1945년 5월 단오에 대한불교천태종이 단양 구인사(救仁寺)를 창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무렵인 1967년 5월 16일 대한불교천태종 울진군지부 소속 신도 몇 명이 충북 단양에 위치한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 다녀온 뒤, 울진읍 고성리 산성동에서 첫 법회를 열면서 발족되었다.

그 후 1974년 8월 16일 울진읍 고성리 산성동에서 성저동 장복근(張福根)의 집으로 상월(上月) 원각대조사(圓覺大祖師)의 진영을 이전하고 첫 법회를 열면서 그 역사가 시작됐다. 1978년 12월 6일 읍내리에 회관을 마련해 이전했고, 이듬해 3월 30일에 불상을 봉안하였다. 1984년 7월 18일 울진읍 읍내3리 월변의 삼봉산 기슭에 법당과 기도실, 사무실, 요사채 2동을 짓고 봉화사라 하였다. 같은 해 9월 18일 봉화사 건립 낙성 대법회 및 불상 봉헌식을 거행했다.<sup>727</sup>

725. 심현용, 2008, 앞 논문, 167~168쪽

726. 울진문화원, 1998, 앞 책, 44쪽

727. 울진문화원, 1998, 위 책, 48쪽

또한 2011년 6월 지관전(地觀殿) 관세음보살 점안식 및 낙성식을 봉행했다. 지관전은 지상 1층과 2층을 합쳐 모두 160평 규모의 대형 법당으로, 2010년 7월 기공식 이후 11개월 만에 완공됐다. 현재 봉화사의 당우로는 법당인 관음전과 지관전, 기도실인 정심당, 요사채인 행원당, 기타 종무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음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기와집이며, 입구 쪽 2층 누각의 지관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기와집이다. 관음전 왼쪽의 정심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기와집이고, 행원당은 2층 구조로 된 팔작지붕기와집이다.

## 6. 부국사(富國寺)

부국사는 울진군 북면 상흥부1길 35(부구리 1103)에 위치한 대한불교천태종 소속 사찰로 매봉산 줄기인 구미산 아래에 있다. 부국사는 1967년 3월 27일 울진군 북면 덕천리 김수문 불자택에서 신도12명이 모여 북면분회를 창립하면서 발족되었다.

1980년 북면 덕천리 퇴천동이 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 부지로 편입이 되어 장순열 불자택으로 이전하여 법회를 열어왔다. 1981년 북면 부구2리 전 783번지를 매입하여 가건물로 법당 13평, 요사채 10평을 건립하였다. 1988년 11월에는 승려 정월중(鄭月重)의 주선과 신도들이 뜻을 모아 현재의 사찰부지를 매입[대지 400여 평, 임야 2,300여 평]하였으며, 1989년 2월 7일에는 현 위치로 이전하여 법당 건립을 발원하는 기도정진에 힘써왔다.

1990년 다시 주변의 농가주택과 임야를 매입하고, 1994년 12월 26일에 종정으로부터 부자 부, 나라 국, 부국사로 사찰명을 하사 받았다. 이로써 천태종 북면 분회에서 천태종 부국사로 개명하였다. 1995년 2월 5일에 종정으로부터 사찰 건립을 증명 받아 그해 9월 19일에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그리고 1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1996년 9월 21일에 법당인 관음전 60평, 요사채 30평, 기타 부속건물 60평을 준공하였다. 관음전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기와 지붕 구조이다. 2001년에 임야 540평, 2004년에 대지 252평과 건물을 매입하는 등 사세를 확장해 가고 있다.<sup>728</sup>

## 7. 불영사(佛影寺)

### 1) 불영사의 창건 설화

불영사는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진덕여왕 5년(651)에 창건했다고 전하는 매우 오래된 고찰이다. 현재까지 많은 스님이 수행 정진하고 있는 사찰이면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

728. 울진문화원, 1998, 위 책, 66쪽

는 전통사찰이다. 비구니가 수행하는 사찰이기 때문에 특히 정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입구에서부터 사찰 경내까지 이어지는 울창한 숲과 풍부한 계곡의 물은 사찰의 격을 한층 높이고 있다.

변화하는 것만이 영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불영사는 지금도 꾸준히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비구니 참선 도량으로, 눈 푸른 납자들이 ‘내가 부처가 되고 중생이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행에 정진하는, 그래서 역동적이면서도 고요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정갈한 사찰, 항상 구도자와 탐방객에게 꿈속의 사찰과 같은 현실의 사찰인 것이다. 이러한 불영사는 불영암(佛影庵)·구룡사(九龍寺)·불귀사(佛歸寺)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의상대사가 절터를 찾으려고 금강산에서 비둘기 세 마리를 날리자 한 마리는 신흥사, 한 마리는 대흥사, 나머지 한 마리는 불영사로 날아갔다는 창건설화가 전해온다. 모두 울진 지역 사찰로, 후대 사람들이 고승인 의상대사와 연결시킴으로써 사격을 올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진덕여왕 5년(651)에 의상대사가 백암산 아래 단하동과 해운봉에 올라가서 북쪽을 보니, 서역의 천축(天竺)과 같은 명산이 바라보여 산마루를 타고 그곳에 당도하니 산세의 묘함이 인도의 천축산(天竺山)과 비슷하여 산 이름을 천축산이라고 하였다. 전면의 큰 못에는 아홉 마리의 용이 있어 주문으로 용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절을 지어 구룡사라 하기도 하였다.

불영사 설화에도 부석사(浮石寺) 창건 설화에 나오는 선묘(善妙)가 등장한다. 신라 진덕여왕 5년(651), 당나라에서 수학하고 귀국한 의상대사가 화엄법회를 열고 한참 교화에 힘쓸 때였다. 어느 날 노인과 8명의 동자가 의상대사를 찾아와 자기들은 동해를 수호하는 호법신장(護法神將)인데 이제 인연이 다하여 이곳을 떠나면서 우리가 살아온 곳에 부처님을 모시는 도량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그동안 인연 닿는 스님을 못 만나다가 이제야 만나게 되었으니, 그곳에 도량을 세워 줄 것을 의상대사께 간청한다.

하루는 포항에 도착하여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디선가 용 한 마리가 나타나 길을 인도했다. 그리하여 울진에 닿았는데, 그 용은 사라지고 울진 앞바다에서 오색구름이 가득 피어나더니 다른 용 한 마리가 나타나 의상대사를 영접했다. 바로 선묘 용이었다.

선묘 용은 의상대사가 중국에 불법을 공부하러 갔을 때 만났던 지방 유지의 딸이었다. 처음은 의상대사를 사랑하여 따랐으나 나중에는 감화를 받아 제자가 되었고, 의상대사가 신라로 돌아갈 때 스스로 용이 되어 뱃길을 옹호하겠다고 서원하여 용이 되었다. 무사히 의상대사를 인도한 뒤에도 의상대사의 어려운 일을 도왔는데, 부석사를 창건할 때 허공에 커다란 돌을 띄워 도적의 무리를 내쫓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나타나 의상대사를 돕고자 한 것이었다. 선묘 용이 기다렸다는 듯 의상대사를 반갑게 맞아 불사 인연지(因緣地)까지 길을 안내하였는데. 문득 천축산 입구에 이르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

터는 대사께서 직접 찾아보셔야 합니다.”하면서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

8일간 혼자 천축산을 돌아보며 절터를 찾던 의상대사는 피로에 지쳐 어느 연못가에 쉬다가 연못을 바라보니 연못 위에 부처님의 형상이 비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격하여 그 자리에서 화엄경을 독송하니 지난번 그를 찾아 왔던 호법신장이라 칭한 노인과 동자 8명이 연못 속에서 올라와 의상대사의 설법을 듣고, “이 산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천축산에 계시던 당시의 형상과 똑같으며 연못에 비친 부처님 영상은 천축산에서 설법하시던 부처님 모습입니다. 주위 환경은 영산회상이 응화된 것이지요.”라는 말을 남기고 용으로 변해 사라졌다. 의상대사는 용들이 살던 연못을 매워 법당을 짓고 부처님 영상이 나타난 곳이라 하여 불영사라 이름 짓고, 부처님 영상이 나타난 곳에는 3층의 무영탑(無影塔)을 조성했다는 설화가 불영사에 전해진다. 지금도 불영사 대웅전 서쪽 천축산 산위에는 부처님 형상을 한 바위와 불공드리는 중생바위 세 개가 있어 천축산 산마루에 햇빛이 비치면 그 그림자가 불영지(佛影池)에 내려앉아 그 형상이 뚜렷하게 보인다.

문무왕 16년(676)에 의상이 다시 불영사를 향해서 가다가 선사촌(仙槎村)에 이르렀는데, 한 노인이 “우리 부처님이 돌아오셨구나.” 하면서 기뻐하였다. 그 뒤부터 마을 사람들은 불영사를 부처님이 돌아오신 곳이라 하여 불귀사라고도 불렀다. 의상은 이 절에서 9년을 살았으며, 뒤에 원효도 이곳에 와서 의상과 함께 수행하였다 한다.

천축산이 품고 있는 자그마한 비구니 여승들의 수도장인 불영사란 이름도 이 연못에서 유래하였다. 한편 불영계곡은 노인과 여덟 명의 동자로 화현했던 구룡이 나타났던 곳이므로 구룡계곡이라고도 부른다. 불영계곡 중에서도 지금의 광천계곡이 바로 그곳에 해당한다고 한다.<sup>729</sup>

## 2) 불영사를 창건한 의상대사

의상대사는 선덕여왕 13년(644) 경주 황복사(皇福寺)에서 승려가 되었다. 얼마 뒤 중국으로 가기 위하여 원효(元曉)와 함께 요동으로 갔으나, 고구려의 순라군에게 잡혀 정탐자로 오인 받아 수십 일 동안 잡혀 있다가 돌아왔다. 문무왕 1년(661) 귀국하는 당나라 사신의 배를 타고 중국으로 들어갔다.

처음 양주에 머무를 때 주장(州將) 유지인(劉至仁)이 그를 관아에 머무르게 하고 성대히 대접하였다. 얼마 뒤 종남산 지상사(至相寺)에 가서 지엄(智嚴)을 청하였다. 지엄은 전날 밤 꿈에 해동에 큰 나무 한 그루가 나서 가지와 잎이 번성하더니 중국으로 와서 덮었는데, 그 위에 봉황의 집이 있어 올라가 보니 한 개의 마니보주(摩尼寶珠)의 밝은 빛이 멀리까지 비치는

729. 울진군, 2001, 『울진군지』; 한국학중앙연구원, 「불영사」,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3월 8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처의 그림자 서린 불영사를 찾아서」,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3월 8일 등 참조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의상을 특별한 예로 맞아 제자가 될 것을 허락하였다.

당나라에 8년 동안 머무르며 지엄에게서 화엄을 공부하고 신라로 돌아온 의상은 낙산사(洛山寺) 관음굴에서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때의 발원문인 「백화도량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은 그의 관음 신앙을 알게 해주는 261자의 간결한 명문이다. 그 뒤 문무왕 16년(676) 부석사를 세우기까지 화엄사상을 펴 터전을 마련하고자 전국의 산천을 두루 편력하는 한편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의상 이전부터 이미 우리나라에 화엄 사상이 알려졌지만, 화엄 사상이 크게 유포되기 시작한 것은 의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의상이 화엄의 큰 가르침을 전하기 위하여 이른바 화엄십찰(華嚴十刹)인 부석사, 미리사(美里寺), 화엄사(華嚴寺), 해인사(海印寺), 보원사(普願寺), 갑사(甲寺), 화산사(華山寺), 범어사(梵魚寺), 옥천사(玉泉寺), 국신사(國神寺)를 비롯하여 삼막사(三幕寺), 초암사(草庵寺), 홍련암(紅蓮庵), 대흥사(大興寺) 등을 세운 것으로 전하여 온다.

울진 불영사 또한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하여 온다. 유백유(柳伯儒)가 쓴 「천축산 불영사기(天竺山佛影寺記)」에 의하면, 의상대사는 진덕여왕 5년(651)에 불영사를 창건하고 동경[지금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해변을 따라 단하동으로 들어와서 해운봉에 올랐다. 그는 북쪽을 바라보고 감탄하여 서역 천축산을 바다를 건너 만들어 놓은 듯하며, 또한 시냇물 위에는 다섯 부처님의 영상이 비치니 더욱 기이한 곳이라 하였다.

그리고 하류로 내려와 금탑봉에 오르니 그 아래에 독룡이 사는 못이 있어 의상대사가 용에게 설법하여 사찰 지을 땅을 베풀기를 청하였으나 용이 따르지 않았다. 이에 의상대사가 주술을 부리자 용은 산에 구멍을 내고 돌을 깨뜨리며 사라졌다. 그 후 의상대사는 사찰을 세우기 위해 못을 메우고, 동쪽에 청련전 세 칸과 무영탑 한 기를 건립하였으며, 땅을 비보하는 뜻으로 ‘천축산 불영사’라 하였다고 한다.

이 모든 사찰이 모두 의상대사에 의하여 창건되었다고 믿기에는 문제가 있으나, 의상대사와 그의 제자들에 의하여 건립되었음은 틀림없다. 의상대사는 성덕왕 1년(702) 세수 78세에 입적하였다.

의상대사의 교화 활동 중 가장 큰 업적은 많은 제자들을 양성한 것이다. 당시에 아성(亞聖)으로 불린 오진(悟眞)·지통(智通)·표훈(表訓)·진정(眞定)·진장(眞藏)·도융(道融)·양원(良圓)·상원(相源)·능인(能仁)·의적(義寂) 등 10명의 뛰어난 제자가 있었고, 『송고승전』에 이름이 보이는 범체(梵體)나 도신(道身), 그리고 『법계도기총수록(法界圖記叢隨錄)』에 이름이 나타나는 신림(神琳) 등도 의상대사의 훌륭한 제자들이었다. 이들을 비롯하여 의상대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3,0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 의상대사는 황복사에서 이들에게 「법계도」를 가르쳤고, 부석사에서 40일간의 법회를 열어 일승십지(一乘十地)에 대하여 문답하였으며, 소백산 추동에서 『화엄경』을 90일간 강의하였다. 지통의 「추동기(錐洞記)」, 도신의 「도신장(道身章)」, 법융의 「법융기(法融記)」, 진수

의 「진수기(眞秀記)」 등은 모두가 의상대사의 강의를 기록한 문헌들이다.<sup>730</sup>

### 3) 불영사의 사적과 문화재

불영사는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천축산에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불국사의 말사이다. 불영사가 진덕여왕 5년(651)에 창건된 이후 많은 고승들과 관인 사대부 및 왕실의 불사로 사격을 유지하여 왔다. 특히 승유역불정책이 혹독한 조선시대에도 대찰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왕실과 원당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태종 8년(1408) 이문명(李文命)이 지은 「환생전기」에 의하면 옛날에 백극재(白克齋)가 울진현령으로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급병을 얻어 횡사하였다. 그러자 그 부인이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불영사로 와서 남편의 관을 탑전에 옮겨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렸다. 그런데 3일 만에 남편이 되살아나 관을 뚫고 나오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탑료를 환희료(歡喜寮), 불전을 환생전(還生殿)이라 하고, 『법화경』 7권을 금자(金字)로 사경하여 불은에 보답하였다고 한다.

또한 현재 의상전(義湘殿)이라 불리는 작은 건물이 있는데, 원래는 인현왕후의 원당(願堂)이었다. 원당이란 왕실의 복을 비는 장소로 사용되는 건물을 지칭하는 말로 조선시대에 이러한 예를 흔히 볼 수 있는데 통도사·선암사·직지사, 파계사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찾아 볼 수 있다. 단순히 왕실의 복만을 비는 것이 아니라 왕손의 태를 사찰 인근에 묻고 이를 축원하는 기능도 맡아 보게 되는데 조선시대에 승유역불정책 속에서 불교가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기능이기도 하였다.<sup>731</sup>

이와 같이 관인이나 왕실의 지원과 보호 속에 불영사는 창건 이후 지속적으로 사세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 잦은 화재와 임진왜란 등으로 사찰의 규모가 줄어 암자로 사격이 격하되기도 하였지만, 현재까지 울진 지역의 유일한 전통사찰로 지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 불영사의 사적은 고려시대까지는 기록된 것이 없고 조선시대부터 기록되고 있다.

창건 이후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쳤으며, 태조 5년(1396)에 화재로 인하여 나한전(羅漢殿)만 남기고 모두 소실되었던 것을 이듬해에 소설(小雪)이 중건하였다. 그 뒤, 선조 원년(1568) 무렵에 성원(性元)이 목어·법고·범종·바라 등을 조성하였고, 남쪽 절벽 밑에 남암(南庵)을 지었으며, 의상이 세웠던 청련전을 옛터에 중건한 뒤 동전(東殿)이라 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 전에 영산전(靈山殿)과 서전(西殿)을 건립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영산전만이 남고 모두 전소되었다. 성원은 선조 36년(1603)에서 광해군 원년(1609) 사이에 선당을 건립하

730. 한국학중앙연구원, 「의상대사」,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4일

731.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처의 그림자 서린 불영사를 찾아서」,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4일

였고, 불전·승사를 중건하였다. 숙종 27년(1701)에는 진성(眞性)이 중수하였고, 경종 원년(1721)에는 천옥(天玉)이 중건하였다. 그 뒤, 재현(在軒)과 유일(有逸)이 원통전을 중수하고 청련암을 이건하였다. 고종 36년(1899)과 고종 43년(1906)에는 설운(雪雲)이 절을 중수하고 선방을 신축하였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응진전을 비롯하여 극락전·대웅보전·명부전·조사전·칠성각·범종각·산신각·황화당·설선당·응향각 등이 있다.

불영사는 울진 지역의 유일한 전통사찰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불영사 소유 문화재에는 보물 3점, 유형문화재 4점, 문화재자료 1점 등이 있다. 문화재로는 보물 제730호인 울진 불영사 응진전, 보물 제1201호인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蔚珍佛影寺大雄寶殿), 보물 제1272호인 불영사 영산회상도(佛影寺靈山會上圖), 보물 제2127호 울진 불영사 불연(蔚珍佛影寺佛輦)을 비롯하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35호인 불영사 삼층석탑(佛影寺三層石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23호인 울진 불영사 신중탱화(蔚珍佛影寺神衆幀畫),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98호인 울진 불영사 불패(蔚珍佛影寺佛牌),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62호인 불영사 부도(佛影寺浮屠) 등이 있다. 그 밖에도 대웅전 축대 밑에 있는 석귀(石龜)와 배례석(拜禮石)·불영사사적비(佛影寺事跡碑) 등 문화재급 유물과 유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 외 불영사 소장 유물로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선문촬요(禪門撮要)』, 『대방광단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丹覺修多羅了義經)』,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금강반야경소론찬요간정기회편(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 『사분계본여석(四分戒本如釋)』, 『칠중수계의궤(七衆受戒儀軌)』, 『치문경훈(緇門警訓)』, 『칠구와불모소설준제시라니경(七俱瓦佛母所說准提施羅尼經)』, 『현행서방경(現行西方經)』, 『고봉화상선요(高峰和尚禪要)』,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불설무량수경(佛說無量壽經)』, 『불설천지팔양신주경(佛說天地八陽神呪經)』, 『불영사 불량답소전책(佛影寺 佛糧沓疏傳冊)』, 「불영사 설선당준각기문(佛影寺 說禪堂浚閣記文)」, 「불영사 시창기(佛影寺始創記)」, 「천축산불영사기(天竺山佛影寺記)」 등의 문헌이 있다.

그밖에 불영사 만고화(萬古和), 불영사 법고(法鼓), 불영사 금구(金口), 불영사 대웅보전 현판(懸板), 「적묵당창설선원기(佛影寺 寂默堂創設禪院記)」, 「대방광불화엄경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疏演義抄)」, 「대방광불화엄경현행원품소(大方廣佛華嚴經賢行願品疏)」, 「불영사 유제(佛影寺 留題)」, 불영사 인합(印盒), 불영사 가직인(佳職印) 및 가직장(佳職章), 불영사 황화실(黃華室) 현판 등이 있다.<sup>732</sup>

732. 한국학중앙연구원, 「불영사」,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5일

## 8. 성조암(聖祖菴)

성조암은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대한불교삼론종 소속의 사찰이다. 원래는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주인리 면전동 뒷산인 각구산 밑에 있던 암자로, 조선시대 숙종대에 한 노승이 초가집을 지어 목불을 안치하고 수도하던 곳이었는데, 사찰에 입적되지 않아 「자연보호법」에 의거하여 1979년에 철거되었고, 지금의 울진군 북면 주인3리인 대수동 각구산 기슭에 다시 신축하였다.

그러나 이곳이 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 부지로 편입되어 다시 1981년에 철거되자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주인1리에 임시로 암자를 신축하였다. 그 후 신도들이 늘어나 수용이 어렵게 되자 1994년에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부구3리 방화동 1308번지에 사찰을 지어 성조사라 하고 성조암(聖祖庵)은 그대로 존속시켰다.<sup>733</sup> 노승이 최초로 암자를 세웠던 절터 뒤에는 소원바위라고 불리는 큰 바위가 있는데 해마다 음력 3월 12일 신도들이 그 앞에 모여 소원을 빈다.

『강원도지』에 의하면 숙종조에 각후사(覺後寺)를 창건하고 이 암자를 지었으나 지금은 절[각후사]은 폐사되고 암자[성조암]만이 남아있다고 하였다. 또 성조암과 관련하여 김년수(金年壽)의 시가 전해지고 있다.<sup>734</sup>

낙화제조산삼월(落花蹄鳥山三月) 꽃 지고 새 우는 산속의 삼월  
괴석기암불일당(怪石奇岩佛一堂) 괴이한 돌 기이한 바위에 한 채의 불당

## 9. 수진사(修真寺)

수진사는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에 창건된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의 말사로 천축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수진사의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신라 신문왕 때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한때 폐사되기도 하였지만 1963년에 중건하였다. 수진사를 포함한 주변 일대는 모두 사지[수진사지]로 추정된다. 수진사의 건물로는 전면 3칸, 측면 2칸의 팔각 기와 집으로서 1963년에 중건한 대웅전과 산신각, 종각, 요사채 2동이 있다. 대웅전 등 경내 건물 대부분은 근년에 다시 중건하였다.<sup>735</sup>

수진사 사적이 전해지지 않아 자세한 내력을 알 수는 없으나, 경내에 있는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석탑재와 지리지 자료를 통해서 그 대강은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 석탑재가 남아

733. 울진문화원, 1998, 앞 책, 63쪽

734. 『강원도지』권5, 사찰 구평해(강원지간행소, 1941), 42쪽

735.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261쪽

있다는 것은 수진사가 고려시대에도 사세를 유지하여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16세기 전반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평해군 불우조, 18세기 후반의 『여지도서』 평해군 사찰조와 『범우고』 평해군조, 그리고 19세기 말엽의 『평해군읍지』 사찰조 및 조선시대 문인들의 시를 통해서 수진사가 조선시대에도 사세를 유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또 수진사는 1937년에 편찬된 『조선환여승람』 울진군 사찰조에도 기록되어 일제강점기까지도 사세를 유지하였다. 사실상 수진사는 창건에서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줄곧 사세를 유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사찰의 규모도 제법 컸음을 볼 수 있다. 수진사는 『여지도서』에 사찰 규모가 46칸이라고<sup>736</sup> 하였으며, 『평해군읍지』에는 32칸으로<sup>737</sup>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제법 큰 규모의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대웅전 안에는 경상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탕화가 봉안되어 있다. 또 경내에는 부도와 석탑재 등의 석조물들이 남아 있으며, 와편이 산재해 있다. 탑재는 지붕돌[옥개석]이 남아 있으며, 그 밖에 석등 지대석과 간주석 일부가 남아 있다.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53호로 지정된 울진 수진사 소장 불화(蔚珍修真寺所藏佛畵)는 제석천룡탱화(帝釋天龍幀畵)로써, 제석천과 천룡팔부중(天龍八部衆)을 함께 그린 불화이다. 천룡은 위태천을 중심으로 팔부중과 사천왕 등 무장의 신중을 일컫는 말로서 화면의 위쪽에는 일월천자, 보살, 천부중을 거느리는 제석천을 배치하고 아래에는 위태천을 위시한 팔부중을 배치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sup>738</sup>

수진사 부도는 대웅전에서 북동으로 약 50m 떨어진 승탑원에 2기가 있다. 부도는 석종형 부도로 무위선사(無爲禪師)와 몽현선사(夢現禪師)의 부도이다. 현재 수진사에는 사적기가 남아있지 않아 두 선사에 대한 행적을 알 수 없다. 형태와 각 부분의 세부 묘사가 약화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몽현선사의 부도는 무위선사의 부도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sup>739</sup>

수진사 석탑재 가운데 지붕돌 2매는 대웅전 앞마당에 다른 석조물들과 뒤섞여 있으며, 지대석과 기단부의 여러 석재들은 대웅전의 계단으로 사용되었다. 일부분의 탑재만으로 제작 시기를 추정하기는 무리이나 지붕돌은 받침이 3~4단으로 혼용되어 있고, 둔중하며, 규모가 소형인 점 등으로 보아 고려 중기에서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sup>740</sup>

수진사에는 조선시대 문인 해월(海月) 황여일(黃如一), 권계(權啓), 선세휘(宣世徽)의 시가 전해지고 있다.<sup>741</sup> 황여일은 울진 평해 황씨로 기성면 사동리에 ‘울진 평해황씨 해월종택’

736. 『여지도서』상, 평해군 사찰(탐구당, 1973) 543쪽

737. 김정민·김주부 역, 2017, 앞 책, 204쪽

738. 문화재청, 「울진 수진사 소장 불화」,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2020년 2월 25일

739. 심현용, 2008, 앞 논문, 177~178쪽

740. 심현용, 2008, 위 논문, 173쪽

741. 『강원도지』 권5, 사찰 구평해(강원지간행소, 1941), 42쪽

이 있으며, 선조 조와 광해군 조에 문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권을 장군의 종사관으로 활약하기도 하였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도 두터운 교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다.<sup>742</sup> 해월 황여일이 수진사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한 이후 다시 찾은 소회를 다음과 같은 시<sup>743</sup>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두백광산괴만귀(頭白匡山愧晚歸) 머리 희어져 산사에 오니 늦게 돌아온 일 부끄러운데  
 죽림의구호선비(竹林依舊護仙扉) 대나무 숲 그대로 사립문 돌렀다  
 상심욕설평시사(傷心欲說平時事) 마음 아파 평화로운 때의 일 말하고 싶으나  
 내차거승일반비(奈此居僧一半非) 어찌 하리 이곳 스님들 반 남아 옛 스님 아닌 것을

## 10. 신계사(神溪寺)

신계사는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에 있는 한국불교태고종 사찰이다. 천축산 지맥이 절 뒤로 힘차게 뻗으면서 감싸고 있어 절 이름을 천축산 신계사라 한다. 신계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백련사에서 성도한 승려 원경이 1989년 금강송면 하원리 주택에서 수도를 하면서부터 창건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1994년 4월 10일에 이곳에 절터를 잡아 불사를 하여 대웅전[30평], 요사[30평], 극락전, 객실 2동, 창고 및 기타 건물 3동을 건립하였다. 1995년 12월 25일에 내부 단청을, 1997년 7월 13일에는 외부 단청을 하였다.<sup>744</sup>

## 11. 신광사(神光寺)

신광사는 울진군 북면 말덕구길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이다. 신광사는 태백준령 동향 끝의 산 모양이 연화대처럼 생겼다고 하여 연화봉 신광사라 한다. 신광사는 1983년 법당과 기도실을 천막으로 지어 수도하다가 1994년에 승려 청우가 전통적 양식의 목조건물(35평)인 대웅전을 중건하였으며,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기와지붕 구조이다. 산세가 수려할 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이 청정하고, 덕구온천이 가까이 있어 지역 및 타지(울산, 부산, 안양) 등지에서 찾아오는 불도의 기도 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sup>745</sup>

742. 강원도, 2007, 『국역 관동지』하, 876쪽

743. 『강원도지』 권5, 사찰 구평해(강원지간행소, 1941), 42쪽

744. 울진문화원, 1998, 위 책, 69쪽

745. 울진문화원, 1998, 위 책, 65쪽

## 12. 용천사(龍泉寺)

용천사는 울진읍 신림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로, 1976년 주지인 우천 주상도가 이곳에서 수도 중에 도를 깨우쳐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산이 좋고 계곡의 물이 맑아 영국명당지(靈局明堂地)라 하여 용천사라 하였다고 한다. 1996년 7월 12일에 법당과 산신각, 낙사전, 용왕당을 건립하여 불상 봉안과 동시에 낙성하였다.<sup>746</sup> 1998년 4월 15일에는 스리랑카 국립 팔리 불교대학 박물관에서 대학장이 용천사 대불사 기념으로 부처님 진신사리 3과를 기증하여 용천사 사리탑에 봉안하였다. 그리고 2011년 7월 10일에는 대웅보전 낙성 및 삼세불 점안식을 거행했다. 현재 주지는 승려 법륜이다.

## 13. 용화사(龍華寺)

용화사는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리 병미마을에 있는 대한불교천태종 사찰이다. 용화사는 뒷산이 웅장하게 솟아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그 산맥이 청룡과 백호의 모습으로 절을 감싸고 있다. 그리고 앞산인 노령산이 노적봉 같이 솟아서 절을 감싸고 있다. 용화사 절터는 천태종 2대 종정인 남대충 승려가 잡았다고 하며, 총 부지는 13,000평이다. 이 가운데 4,500평은 이 마을의 이영자가 기증하였다. 1994년에 법당과 요사를 기공하여 1995년에 준공하였다. 용화사 주지는 승려 용화에서 현재는 승려 박성래가 주석하고 있다.<sup>747</sup>

## 14. 월궁사(月宮寺)

월궁사는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의 말사로 1953년에 창건되었다. 월궁사는 월송초등학교 북서편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고모산성 석굴 속에 약 500년 간 방치되어온 불상이 정범연 스님에게 현몽되어 1953년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에 월궁사를 건립하여 안치하였다고 한다. 월궁사 당우로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와가 대웅전 1동과 칠성각 1동, 요사채 1동이 있다.

월궁사 대웅전에는 본존불인 소조불좌상(塑造佛坐像)과 협시불인 지장보살상·십일면관음보살상이 봉안되어 있다. 소조불좌상은 총 높이 77cm, 머리 높이 31cm, 어깨너비 39cm, 가슴너비 21cm, 무릎 폭 48cm, 무릎 높이 14cm이다. 나발(螺髮)의 머리에 육계가 있고 결가부좌(結跏趺坐)하여 양손을 무릎 위에 놓고 있다. 오른쪽 귀 부분이 마멸되어 있으나 개금과 더불어

746. 울진문화원, 1998, 위 책, 46쪽

747. 울진문화원, 1998, 위 책, 68쪽

어 복원했다.<sup>748</sup>

월궁사 대웅전 불상은 석불이 아니라 소조불이라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웅전 불상은 본래 백암산 절터골[또는 절태골] 백암사지에 있었던 불상이 백암사가 폐허가 된 후 인근 동굴에 모셔져 있다가 1960년대 초 당시 월궁사 주지가 인력을 동원해 월궁사로 옮겨왔다고 하였다.

또 불상 전면에 금칠이 되어 있는 지금의 모습과 달리 1960년대 불상의 모습은 회가 바래져 약간 누른색을 띤 상태로, 오른쪽 눈언저리와 코끝, 오른쪽 귀의 아래 끝단 부분이 파손돼 있었고, 목이 부러져 몸통과 머리가 분리된 상태였다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른쪽 귀 뒷면에 새로 붙인 흔적과 부러진 목을 붙인 흔적 등을 확인함으로써 증언이 사실임이 입증됐다.

따라서 높이 66.5cm인 불상의 표면에 거꾸집 결합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꾸집으로 찍어 만든 것이 아니라 손으로 빚어 만든 것으로 짐작되며, 신체에 비해 비대해진 얼굴과 좁은 어깨, 짧은 목 등 전체적으로 획일적인 얼굴과 도식적인 주름의 표현 등을 보아 조선 후기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18~19세기 작품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sup>749</sup>

## 15. 자황사

자황사는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994-2번지에 소재한 자황종 사찰로 2009년 현 주지 자승이 창건하였다. 천진사에서 5년 동안 수행하던 자승이 기도 끝에 매봉산 아래에 사찰을 지었다. 천축산을 아버지로 하고 매봉산을 아들로 보아서 한국호국불교조계종으로 ‘자황사’라는 이름을 사찰명으로 하였다. 천축산 기운을 이어받은 매봉산이 길지로서 사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창건하였다고 한다. 자황사 불전은 대웅전과 산신각, 요사채 3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민족 고유의 토속신들을 불교적으로 수용하여 모셔 놓은 산신각이 대웅전 뒤에 위치하고 있다.

## 16. 죽청사(竹靑寺)

죽청사는 울진군 죽변면 주변리에 있는 대한불교천태종 사찰이다. 죽청사는 1965년에 천태종 죽변분회로 발족하였다가 1970년에 창건되었으며, 천태종 죽변분회로도 활동하고 있다. 1990년 11월 26일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관음전 60평과 요사 50평을 준공하였다.

748. 울진문화원, 1998, 위 책, 54쪽

749. 심현용, 2008, 앞 논문, 175~176쪽



죽청사 관음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기와지붕 구조이다. 죽청사 주지는 승려 시용이다. 현재 부국사 주지까지 겸임하고 있다.

## 17. 지장사(地藏寺)

지장사는 울진읍 명도리 새터마을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이다. 승려 형문(亨問)이 경기도 의정부 소재 지장사에서 수도하던 중 1994년 3월 3일에 이곳에 와서 불사를 시작하면서 창건하였다. 1995년 음력 3월 3일에 법당과 요사를 지었는데 법당에는 삼존불[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봉안하고 있고 현판은 승려 일타의 글씨이다.<sup>750</sup>

또 지장사에서는 2010년 12월 19일에 정면 7칸, 측면 2칸의 맞배기와지붕 구조인 염불선원 현판식을 하였고, 현판의 글씨는 서예가 단산 김재일이 썼다. 2019년 8월 30일에는 기존의 법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무량수전’ 대작불사 상량식을 거행하였다. 무량수전은 2020년 말경에 낙성을 할 예정으로 현재 불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주지는 승려 형문이다.<sup>751</sup>

## 제2절 사지(寺址)

절터는 과거에 사찰이 존재했으나 세월이 흘러 절이 폐사되어 그 흔적만 남아 있는 터로, 대개 탑재(塔材)나 석등(石燈) 등의 석조물이 남아 있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고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고려시대까지 점차 사찰의 수가 증가되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승유억불 정책에 따라 많은 절이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 폐사의 원인을 보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승려 스스로 사찰을 떠나거나 화재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폐사되기도 한다. 또 임진왜란이나 한국전쟁과 같은 외세에 의한 전쟁,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수탈 등으로 폐사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사찰의 불전은 대부분 목조 건축물이다. 목조 건축물은 습기와 화재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관리가 허술해지면 빨리 부식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폐사지에는 불과 습기에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주춧돌·석등·석탑재·기단석·축대 등의 석재 유물이 주로 남아 있다. 이런 석조물은 대부분 주변의 사찰에서 가져가 재사용하거나, 조선시대에는 향교나 서원 등에서 건축자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750. 울진문화원, 1998, 앞 책, 46쪽

751. 전화 인터뷰(지장사 주지 형문, 여, 2020. 2. 25.)